

과일·채소 폭등에 비상수급안정대책반 가동

농식품부, 수급상황실 개편해 농식품 물가 대응 총력... 납품단가 204억·할인 230억 지원 등 전방위 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일과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 폭등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매일 점검 회의를 열어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과 협회 유통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수급안정대책반 첫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자 지난해 11월부터 농식품 물가를 잡기 위해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하는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했다. 국민 먹거리와 밀접한 주요 농식품 품목에 대해 전담자를 지정하고 가격과 수급 상황을 중점 관리했다.

이 같은 농식품 물가 관리에도 상승세가 지속됐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20.9% 상승 2011년 1월(24.0%) 이후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사과

(71.0%), 귤(78.1%), 토마토(56.3%), 파(50.1%), 쌀(23.3%)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0.80%포인트(p)로 2월 소비자물가가 다시 3%대(3.1%)로 올라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 불안 요인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수급 상황실을 비상수급안정대책반으로 즉시 개편하고, 수시로 차관 주재 점검·대책회의를 하고 식량정책실장 주재로는 매일 회의를 열어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병해충 영향으로 생산이 줄어든 사과·배 등 과일류와 최근 잦은 강우·일조량 부족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배추·대파·토마토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전방위 대책을 추진한다. 사과와 대파, 청양고추, 토마토 등 13개 품목 농산물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 예산을 당초 15억원에서 204억원으로

대폭 확충하고, 할인 지원 예산도 230억원을 투입해 체감 가격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사과, 대파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해 유통업체 판매가격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할인지원 사업도 전·광역대비 30% 이상 가격이 상승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할당관계 적용 품목을 확대 수입과 일 공급을 늘리고 대파·건고추 할당관세 물량과 저율관세출하물량(TRQ)을 신속 도입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사과·배 등 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에 대한 수요를 수입산 대체과일로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만다린(5000), 두리안(13000), 파인에플루스(관세율 50~100%) 등 할당관계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상반기 물량이 신속하게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업체

별 수입 실적에 따라 물량을 추가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한 차관은 "오렌지와 바나나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수입을 추진해 저렴하게 시장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대파는 분배과가 출하되는 5월 이전까지 할당관계 물량을 3000t 추가하고, 건고추는 TRQ 비축분 760t을 최대한 신속하게 방출 하겠다"고 말했다.

비교적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 기저치가 높아 체감도가 높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지속한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국제 원재료가격 하락분이 식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업계와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한 차관은 "농식품부는 납품단가 인하 지원, 할인 지원, 해외 공급 확대 등 정부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무주덕유산CC 3월 7일 개장

덕유산 국립공원 해발 900M 청정 고원 위치·아늑드파머 설계

국내 최고 청정 고원 골프장 무주덕유산CC가 겨울 휴장기를 마치고 오는 3월 7일 개장한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는 덕유산 국립공원 해발 950m에 총 18홀의 코스(인코스 파36, 아드 3.25 / 아웃코스 파36, 아드 3.47)를 보유하고 있다. 골프의 전설 아늑드파머가 청정고원 골프장의 지형적 특성을 잘 살려 풀과 나무, 물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해 호쾌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골퍼들에게 정평이 나 있다. /무주=전문선거사

3월과 4월에는 지난해보다 그린피를 낮춰 합리적인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며, 주중 오전 7시 30분 이전 티 오피스 조조한인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골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스트리아 특급 호텔티롤과 가족호텔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마치고 고품질 서비스 제공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진청, '사물인터넷 기반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 기술' 사업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농업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2019년 정보통신기술(CT)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해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진행했다.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농업 기계에 붙인 단말기와 도로에 설치한 엘이디(LED) 주행 안내표지판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다. 주행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접근이



농촌진흥청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 감지되면 어떤 농업기계인지, 접근 거리와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 정보가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된다. 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감속하거나 주의해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계 운행이 빈번

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전국 14개 지역에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33개와 농업기계용 단말기 610대를 설치했다.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과 농업기계용 단말기를 설치한 곳 중 전남 장흥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일반차량 2,454대의 평균속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평균속도가 최소 11% 줄었으며, 60km/h 도로에서 과속차량도 25% 줄었다.

농작업 특성상 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쓰러짐, 뒤집힘 등 농업기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 신고가 늦어져 사망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단말기 내 감지기(센서)가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

케이션으로 사고정보를 전달한다. 사고자가 20초간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된 제3자(보호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으로 사고정보를 발송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 기술을 농촌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주행형 농업기계인 트랙터, 경운기 2종을 대상으로 적용 중이다. 앞으로는 다른 주행형 농업기계 기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이 기술을 표준화에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을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추가하거나 농업기계 사고 감지 정보를 119 응급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북중기청, 글로벌 유니콘 꿈꾸는 후보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인태용)은 2024년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아기유니콘 육성사업 및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부터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아기유니콘 250개사, 예비유니콘 111개사를 선정해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사업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높여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글로벌 컨설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누적 투자유치 실적 20억원~100억원 미만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기업가치 요건이 신설되어 기업가치 300억원 이상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가점을 확대(1점→2점)하고, K-Global STAR 선정기업에 대한 가점항목도 신설해 특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최종 선정 이

후 별도의 기술평가와 보증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2024년부터는 전용 보증 상품(아기유니콘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평가 과정에 보증심사 절차를 추가, 아기유니콘 기업이 성장자금을 신속·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혁신성장·성장성·시장잠재를 모두 갖춘 기업,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 △지역 스타기업 중 혁신성과 성장성을 충족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보증심사를 거쳐 발표평가에서 전문평가단과 국민심사단의 공동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200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K-Global STAR 선정기업, 지역스타기업에 대한 가점이 신설되고,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해 해외 시장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아울러 최종평가 우수기업(상위 30%)은 보증지원 결정금액의 30%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LH 전북지역본부,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임직원·시공사 등 50여명 참석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섭)는 지난 5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안전경영 선포식과 연계한 안전문화행사를 진행했다.

해빙기를 맞아 아파트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의지를 굳건히 하고자 LH 임직원 및 현장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안전경영 선포식을 시행하고 건설현장 사고 사례와 보고체계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제로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이후, 담양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시행

하는 안전체험을 통해 사업장 및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직접 체험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키웠으며, 재해·재난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LH 김동섭 전북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동참하고, 안전의식 재고에 최선을 다하는 전북지역본부가 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속한 초기대응과 긴급복구체계 정비를 통해 재난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